

중국 증시의 A주식 / B주식

중국에는 '상하이 증권거래소'(1990년 12월 19일 설립)와 '선전 증권거래소'(1991년 7월 5일 설립)가 있으며, 중국의 주식은 크게 A주식과 B주식, 해외상장 주식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A주(株)는 내국인이 투자 전용, B주는 외국인이 투자전용으로 구분해 운영해 왔으나, 2001년 초 B주에 내국인 투자가 부분적으로 허용되었으며, 2002년 12월 A주에 외국이 투자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중국은 단계적으로 A·B증시를 통합할 계획이다.

■ A주식(A-share)

내국인 투자 전용의 A주는 인민폐인 위안화로 거래되며, 중국 국적의 자연인과 법인으로 투자자격이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2년 12월 2일부터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은 허가를 받은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에 한해 내국인 전용 A주식과 국채, 회사채 등에 대한 투자를 허용했다.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이 A주식에 투자하려면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로부터 '역외기관투자자(QFII :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자격을 받아야 한다. QFII 인준을 받은 외국 증권사는 투자규모가 제한되며 투자이익을 달러로 송금할 수 있으나 증권 당국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엄격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외국인 장기투자를 장려하고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투자제한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다.

A주는 소유 주체에 따라서 국가주, 법인주, 사회개인주, 기업직공개인주로 구분된다. 국가주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기업공개발행 전에 발기인 형식으로 투자한 기업의 지분으로 대부분 국유기업의 정부참여지분을 말하며, 법인주는 기업이나 법인자격의 사회단체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투자매입한 주식이다. 사회개인주는 개인이나 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해 취득한 주식이며, 주식 총발행액의 2.5% 이내에서 발행된다. 기업직공개인주는 우리사주와 비슷한 유형이며, 발행 후 3년이 지나야 내부 직공 간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회개인주와 기업직공개인주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가 가능하며, 국가주와 법인주는 거래가 불가능하다.

■ B주식(B-share)

B주는 중국 경제의 발전과 해외자본을 직접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는 주식으로 시작했으나 2001년 2월 내국인 투자가 허용되었다. 액면가는 인민폐로 표시되지만 상하이거래소에서는 미국달러로, 선전거래소에서는 홍콩 달러로만 호가거래가 가능하다. 같은 종목의 A와 B주식 소유자는 각각 회사법에 근거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나, 발행 때와 상장 뒤 B주식이 A주식보다 할인돼 거래되고 있다. B증시는 그 동안 내국인 투자가 제한돼 거래가 매우 부진했으며, 그 결과 같은 기업이 발행한 것이라도 B증시에 상장된 주식은 A증시에 비해 주가가 절반을 밑도는 것이 수두룩했다. B증시에는 차이나텍스타일 상하이제철 등 우량주가 다수 상장되어 있으며, 최초의 B주식 발행사는 1992년 2월 상하이 거래소에 상장한 上海眞空電子器件有限公司이다.

■ 해외상장 주식

해외상장 주식은 상장거래소의 첫 알파벳을 따서 이름붙였다.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국유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H주식, 뉴욕증권거래소에 직접상장 또는 ADR 형식으로 상장된 주식은 N주식, 동경증시 상장 주식은 T주식, 싱가포르 증시 상장 주식은 S주식, 런던증시 상장 주식은 L주식 등이다. 중국은 대형기업의 자금조달과 국제시장에서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993년 홍콩증권거래소를 시작으로 뉴욕, 동경, 런던, 싱가포르, 호주 등의 증권거래소와 합의, 중국 기업 해외상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선강통 [深港通]

광둥성 선전(深圳)증시와 홍콩 증시간의 교차매매. 중국 자본시장은 2014년 후강통(港通·상하이와 홍콩 증시 간 교차매매)을 실시한데 이어 2016년도 하반기에 선강통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강통이 실시되면 한국 투자자들도 홍콩을 통해 선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선전거래소는 1990년 12월 설립됐으며 이른바 '신경제' 주식으로 대변되는 정보기술(IT)과 헬스케어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상하이거래소가 4대 은행을 포함한 대형 국유기업, 민영 대기업 위주의 시장인 것과 차별화된다. 이에 따라 선전거래소는 한국의 코스닥 시장과 비슷하게 '중국판 나스닥' 또는 '차스닥'으로 불린다.